



[해설]
지역경제 살릴
로컬크리에이터 과제
살펴보니
03



Economy

코스피 2151.18 (+4.18)	코스닥 742.37 (+4.71)
금리 (미국 3년) 0.886 (+0.020)	환율 (USD-달러) 1218.70 (+1.90) (4일)

5년 뒤 ‘드론 택시’ 상용화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탄력

정부,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민관합동 실증사업 착수
노선, 운항기준 등 마련

현대차 UAM사업부 신설
전문 인재 채용 등 속도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모형물 전시.

한국 기업들도 미래 모빌리티 (이동수단)로 지목된 하늘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로 하늘길 주목한 것은 세계 대도시의 메가시티화(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 도시화)로 이동 효율은 급락하고 물류 운송비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막혀 현지에 맞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4일 정부가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하늘길 경쟁에 뛰어 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정부는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착수해 2024년까지 통신환경, 기상 조건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화 전인 2024년에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을 잇는 실증노선을 지정·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인승 시제기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중·장거리용(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UAM이 상용화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기업들의 하늘길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드론 업체 이항은 1인용 드론 택시 ‘이항 184’를 선보였으며 10월엔 우버가 ‘우버 엘리베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 항공기(PAV)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에어버스·보잉·아우디·다임러·도요타·현대차 등 글로벌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 들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미디어 ‘제2회 FFTK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푸드테크 미래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업계는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6월 24일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에서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를 개최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FFTK2020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가제)’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자신이 경험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의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행사명 : 2020 Future Food-Tech Korea(FFTK 2020)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2호선 충정로역)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R&D센터장
 - 세션강연 :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김혜연 엔싱 대표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
(02)721-9841,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02)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비 : 11만원(학생은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최 : 메트로미디어
 - 주관 : (주)에이커스



여러분 덕분에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꿈세김판이 6·25전쟁 7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새롭게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공유숙박 등 ‘한걸음모델’ 연내 성공사례 마련”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외환서비스 진입 완화 추진

정부가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을 한걸음모델 성공사례로 만들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 산림 관광 등 3개 과제를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후보 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걸음모델이란 신산업 영역 개척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하고 정부가 중재적 지원을 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고려,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특히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

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해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 허용 등의 계획을 밝혔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hys@

4월 경상수지 -31.2억 달러 적자 규모 9년3개월來 최대

코로나 여파 수출 급감 영향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9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급감하자 상품수지 흑자가 쪼그라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0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31억 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2011년 1월(-31억 6000만 달러) 이후 최대다.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것은 계절적 배당지급이

축소됐음에도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상 4월에는 연말 결산 법인들의 외국인 배당이 집중되는 계절적 이유로 경상수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수지는 8억 2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4월(3억 3000만 달러)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은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363억 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8%나 급감했다. 이는 2010년 2월(313억 6000만 달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김희주 기자 hj89@